

『에우노미우스 논박』(*Contra Eunomium*)에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그리스도교적 언어관* -신의 표현 불가능성(ineffability)과 신의 이름 문제를 중심으로-

임형권**

< 목 차 >

1. 서론
2. 『에우노미우스 논박』의 역사적, 종교적 배경
3. 그리스도교적 존재론과 플라톤적 존재론의 대립
4. 그레고리우스와 에우노미우스의 언어관 비교
5. 신을 향한 갈망과 표현 불가능성
6. 그레고리우스에게서 언어와 신의 이름의 의의
7. 결론

【요약문】 그레고리우스의 사상은 에우노미우스의 아리우스적 사상과의 대결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플라톤주의의 틀로 기독교 교리를 해석한 에우노미우스와 달리 그레고리우스는 플라톤주의를 수용하면서도 그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무한한 신과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정통 그리스도교의 존재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성부를 나지 않은 존재(Unbegotten) 성자를 나아진 존재(Begotten)라고 부르고 이 어휘들이 성부와 성자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다는 에우노미우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다. 본 논문은 신의 표현 불가능성(divine ineffability)과 신의 이름(divine name)을 주제로 삼아 두 저자의 견해의 차이는 서로 다른 플라톤주의 수용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에우노미우스는 플라톤주의적 존재론의 영향으로 신의 본질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그레고리우스는 무한한 신과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에 기초한 기독교적 존재론을 고수함으로써 인간은 신의 본질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그의 이름도 신의 본질을 반영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주제어】 기독교 신비주의, 표현 불가능성, 신의 본질, 신의 활동, 플라톤적 존재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NRF-2019S1A5B5A07110535)

**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선임연구원

1. 서론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뿐만 아니라 세계 종교의 여러 신비주의 전통에서 신의 표현 불가능성(ineffability)의 문제는 중요한 주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¹⁾ 동서양의 여러 신비가들의 저술에서 인간의 유약한 지성으로는 신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진술이 종종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비가들에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을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성향을 발견하게 된다. 『종교적 체험의 다양한 형태들』에서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신비적 의식 상태의 네 가지 특징을 지적 성질(noetic quality), 일시성(transiency), 수동성(passivity) 그리고 신비적 체험의 표현 불가능성(ineffability)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임스는 신비적인 의식 상태를 경험한 사람은 말로 그것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그 상태를 알려줄 수 없다고 보고한다.²⁾ 하지만 동시에 그는 신비적 상태는 지식의 상태로서 추론적(discursive)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진리의 심연들에 대한 지적인 통찰(intellectual insight)의 상태라고 지적한다.³⁾ 제임스의 연구가 보여주듯 신비적 종교 경험은 언어라는 매체를 비껴나가지만, 동시에 그것은 언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간의 지성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고 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제임스의 신비 체험의 특성에 대한 규정은 기원후 4세기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에 위치한 카파도키아(Cappadocia)의 그리스도교 교부들의 사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카파도키아 지역은 지하 교회, 동굴 수도원 등 초기 그리스도교의 유적으로 유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초기 기독교 사상의 요람이었다. 이 지역은 초기 그리스도교 삼위일체 교리 확립에 공헌한 세 명의 기독교 교부로 유명하다. 흔히 카파도키아 교부들로 불리는 카이사레이아의 바실레이오스(Basil of Caesarea), 니사의 그레고리우스(Gregory of Nyssa),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Gregory of Nazianzus)가 그들이다.⁴⁾ 이 중에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대(大) 바실레이오스의 동생으로 형의 명성에 가려져 주목을 덜 받았지만 그리스도교 신

1) 동서양의 종교, 철학 전통에서 표현 불가능성 문제를 연구한 다음 논문집을 보라. Knepper, T. D. & Kalmanson, L. E., *Ineffability: An Exercise in Comparative Philosophy of Religion*, 2017.
2) James, W.,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2002, p. 295.
3) James, W.,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2002, p. 295.
4) 카파도키아 교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Anthony Meredith, *The Cappadocians*, 1995.

비주의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⁵⁾ 장 다니엘루(Jean Daniélou)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를 ‘신비신학의 창시자’라고 규정한다.⁶⁾ 앤드류 라우쓰(Andrew Louth)는 그를 “사변적인(speculative) 신학자이자 신비가”이면서 카파도키아 교부들 중에서 가장 재능이 있는 인물로 생각한다.⁷⁾ 한스 폰 발타자르(Hans Urs von Balthasar)는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의 대승인 오리게네스보다 덜 뛰어나고 영향력이 덜하고, 그의 친구 나지 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보다 교양이 부족하고, 그의 형제인 바실레이오스보다 실천력이 떨어지지만, 그는 사상의 깊이 면에서 다른 이들을 능가한다.⁸⁾

그레고리우스는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아테네와 콘스탄티노플에서 수학한 형 바실레이오스를 아버지이자 스승으로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았다. 그는 그리스 철학을 통해 그리스도교를 해석했지만, 엄밀히 말해 그는 플라톤주의를 기독교화한 그리스도교적 플라톤주의자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정신과 물질을 이원화하여 세계를 이해하는 플라톤주의의 이원론적 사고를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했다는 말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그는 정신과 물질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플라톤적인 이원론적 구도보다 무한한 신과 유한한 피조물 사이의 무한한 간극을 설정하는 존재론적 구도를 더 우선시한 것을 말한다. 이런 사고의 틀은 그의 교리적 저술, 철학적 저술, 성서 주석에 잘 드러나고 있다.⁹⁾

『에우노미우스 논박』(*Contra Eunomium*)은 그리스도교 삼위일체론의 확립 과정에서 탄생한 책이다. 본 논문은 이 논쟁적 저술을 소재로 하여 그리스도교 교리 자체보다는 교리를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동원된 언어에 대한 통찰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책은 그레고리우스의 후기 저술에 속하는 저술로 그리스도를 신의

5) 바실레이오스는 대 바실레이오스(Basil the Great)로 불릴 정도로 지적 수준뿐만 아니라 수도원 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레고리우스의 전기와 관련한 자료로는 다음을 보라. Silvas, A. M., *Gregory of Nyssa: The Letters*, 2007, pp. 1-57.

6) Daniélou, J., *Platonisme et théologie mystique*, 1944, p. 35.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다음을 보라. Crouzel, H., "Grégoire de Nysse est-il fondateur de la théologie mystique?" 1967, pp. 402-406.

7) Louth, A., *The Origins of the Christian Mystical Tradition*, 2007[1981], p. 78.

8) Balthasar, H. U. von, H., *Présence et Pensée*, 1988, xiv.

9) Ivanka, E. V., *Plato Christianus: Übernahme und Umgestaltung des Platonismus durch die Väter*, 1964. Pelikan, J., *Christianity and Classical Culture*, 1955.

피조물로 여기는 아리우스 진영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 논쟁적 저술은 기본적으로 그의 그리스도교적 존재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에게 창조자는 유한한 피조물이 지성과 언어로 파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 때문에 신의 본질에 인간이 지성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에우노미우스의 생각은 이 논박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이 저술은 기본적으로 교리 논쟁의 맥락에서 등장한 책이지만, 이 과정에서 언어의 기원, 본성, 기능과 같은 중요한 언어 철학의 쟁점들이 등장한다. 바로 본 논문은 그의 언어에 대한 관심에 집중한다.

2. 『에우노미우스 논박』의 역사적, 종교적 배경

로마 제국의 종교적, 정치적 일치를 위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한 니케아 공의회(325)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며 그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아리우스(c. AD 256-336)가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결과적으로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homoousios)을 가지고 있다는 아타나시우스파의 주장이 정통 교리로 확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의 사상의 영향력은 여러 형태로 그의 사후에도 지속되었다. 뛰어난 지성과 수사적 능력으로 유명했던 안디옥의 아에티우스(Aetius of Antioch)와 그의 제자인 치지쿠스의 에우노미우스(Eunomius of Cyzicus)와 같은 상이본질파(Anomoeans)는 아리우스의 사상을 극단화하여 성자와 성부의 본질은 유사하다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넘어 두 존재의 본질은 전혀 다르다는 급진적인 사상을 내세웠다. 오늘날 신아리우스주의(Neo-Arianism)라고 불리는 이 사상 조류는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같지 않다는 아리우스의 사상을 철학적으로 더욱 심화시켰다.¹⁰⁾ 에우노미우스는 치지쿠스(Cyzicus)의 주교가 되어 『변호』(*Apologia*)라는 책을 통하여 아리우스주의를 변호했고, 이에 대해 카파도키아 교부 중 하나인 바실레이오스는 『에우노미우스 논박』(*Contra Eunomium*)이라는 책을 통하여 에우노미우스의 아리우스주의 사상에 대해 신학적, 철학적으로 맞섰다.¹¹⁾ 이 대응에 반응하여 다시 에우노미우스

10) Kopeck, T. A., *History of Neorianism vol. 2*, 1979.

11) 참조. DelCogliano, M. & Gallwitz, A. R., *Basil of Caesarea, Against Eunomius*, 2011.; DelCogliano, M., *Basil of Caesarea's Anti-Eunomian Theory of Names: Christian Theology and Late-Antique Philosophy in the Fourth Century Trinitarian Controversy*, 2010.

는 『변호에 대한 변호』(*Apologia apologiae*)를 통해서 바질레이오스의 공격에 응수한다. 하지만 바질레이오스의 이른 죽음으로 논쟁 자체가 무산될 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바질레이오스의 동생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형이 관여했던 논쟁을 이어받게 된다. 그레고리우스의 반아리우스주의는 『에우노미우스 논박』(*Contra Eunomium*)이라는 제하의 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세 명의 카파도키아 교부들 중에서 가장 철학적이라고 평가되는 그레고리우스는 삼위일체 교리 확립과 이 교리를 철학적 측면에서도 정교화하는 데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서방 그리스도교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처럼 오늘날까지도 신학자뿐만 아니라 철학자, 기호학자, 언어학자들을 비롯한 인문학자들과의 대화 상대자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논쟁적 저술이 교리적 수준을 넘어서 철학적 수준의 논의를 다루고 있는 것은 에우노미우스가 철학적으로 정교하게 훈련된 지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 사상으로 훈련된 학자였고 신의 나옴(divine generation)의 문제를 언어 철학적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논증력과 수사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 인물의 주장에 대하여 정통 그리스도교가 철학적으로 답변한 책이 바로 『에우노미우스 논박』이다. 그는 이 저술에서 에우노미우스의 주장들을 인용해 가면서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데 중세의 보편 논쟁이나 소쉬르(F. Saussure)의 언어학, 데리다(J. Derrida)의 해체론(deconstruction)이 가진 통찰을 담고 있다.¹²⁾

3. 그리스도교적 존재론과 플라톤적 존재론의 대립

그레고리우스의 저술에서 플라톤 철학의 사고 틀이나 용어들이 흔하게 등장한다. 그는 존재론적 수준에서 정신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구분하는 플라톤의 이원적 세계관을 따른다. 플라톤에 따르면, 세계는 가시적인 현상 세계와 그 세계의 모델이 된 정신적인 세계인 이데아계로 구분된다. 그리고 감각적, 가시적 세계는 이데아계를 모델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두 세계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플라톤의 『티마이우스』에서 티마이우스는 신의 창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2) 스코트 더글라스(Scot Douglass)는 다음 책에서 현대 언어철학 담론과 카파도키아 교부들의 언어관 사이의 대화를 시도한다. 참조. Douglass, S., *Theology of the Gap: Cappadocian Language Theory and the Trinitarian Controversy*, 2005.

완전하고 완결된 지성적 존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모델로 삼아, 신은 세계를 단일하고, 가시적이고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모델과 자연적으로 유사하다.¹³⁾

또한 그레고리우스는 플라톤 철학의 최고 존재인 진, 선, 미의 이데아를 기독교의 신의 표상으로 사용한다. 특히, 그는 그리스도교의 신을 ‘아름다움 자체’(The Beauty)로 종종 표현한다.¹⁴⁾ 그는 플라톤 철학의 ‘감각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 사이의 구분을 사도 바울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대조에 상응시킨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가장 의미 있게 구분하는 방식은 지성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 사이의 구분이다. 감각적인 본성은 사도[바울]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리고 사도는 지성적인 본성을 지닌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부른다. 사도는 감각에 기초한 이해를 제함으로써 지성을 비물질적이고 지성적인 대상으로 인도한다.¹⁵⁾

그레고리우스가 이러한 구분에 동의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창조주와 가변적인 피조물 사이의 구분과 플라톤의 철학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레고리우스의 기독교적 세계 이해 방식은 플라톤적 존재론과 차이를 드러낸다. 플라톤에게는 변화무쌍한 감각의 영역과 시공간을 초월해 있고, 불변하는 지성의 영역은 평행선을 그으며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 반면, 그레고리우스의 그리스도교적 존재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무한한(infinite) 창조자와 피조된 존재(ens creatum)인 유한한 피조물 사이의 존재론적 구도가 우선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폰 발타자르(von Balthasar)가 잘 지적한 대로, “그레고리우스가 그의 형이상학의 근본 원리들을 발전시킬 때는 언제나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의 환원할 수 없는(irréductible) 대립에서 출발한다.”¹⁶⁾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은 신과 대비해서 피조물의 세계는 시간에 종속된 되어감(becoming)의 세계이

13) Plato, ed. Johansen, T. K. & trans. by Lee, D., *Timaeus and Critias*, 2008, p.19[30d].
14) Iozzia, D., *Aesthetic Themes in Pagan and Christian Neoplatonism: From Plotinus to Gregory of Nyssa*, 2015.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기독교의 신에 대한 표상으로 플라톤적 언어인 ‘아름다움 자체’를 사용한 것은 그가 플라톤적 에로스 개념을 아가페적으로 재해석하기 때문이다.
15) Brugarolas, M.,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 2018, p. 121.
16) Balthasar, H. U. von, H., *Présence et Pensée*, 1988, p.27.

다. 이 되어감의 세계를 폰 발타자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일 시간이 물질적 존재의 기초가 된다면, 이 물리적 운동은 그 자체로 원초적(primordial) 운동 위에 세워져 있다. 그 운동은 형이상학적 운동으로서 모든 피조물에 공통적이다. 그것은 무(無)로부터 존재로의 이행이다.”¹⁷⁾ 폰 발타자르에 따르면, 피조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창조(creatio ex nihilo)되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운동의 상태에 있다.

피조되지 않은 본성과 피조된 존재를 구분하는 장벽은 크고 뚫을 수 없다. 피조된 존재는 유한하고, 피조되지 않은 존재는 창조자의 지혜가 정한 바 그 적절한 정도 안에 구속되어 있다. 그리고 피조되지 않은 존재의 경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¹⁸⁾

플라톤 철학에서 우주의 조물주인 데미우르고스는 기독교의 절대적 창조자가 아니라 지성적 세계의 이데아를 모델로 하여 물질적 세계를 만들어내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조물주는 물질을 빚어내는 장인과 같은 존재로, 물질을 무에서 창조한 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반면 그레고리우스가 이해하는 기독교의 창조자는 물질에도 지성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은 무한한(infinite) 창조자이다.¹⁹⁾ 물질, 지성, 인간의 신체, 인간의 신체를 통해서 구현되는 언어 현상도 시간적, 공간적 간격, 그레고리우스가 사용한 용어로 간격을 뜻하는 그리스어 디아스테마(diástēma)를 특징으로 하는 피조물에 속한다. 따라서 그레고리우스에게 지성은 피조물이라는 인간 조건을 넘어설 수 없다. 그에게 플라톤주의의 지성계-감각계의 이원론적 구도는 창조자-피조물의 구도 속에 종속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당하게 그레고리우스는 그리스도교적 플라톤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그레고리우스의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플라톤주의 수용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플라톤주의에서 물질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에 비해서 열등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그레고리우스의 무한한 창조자-유한한 피조물의

17) Balthasar, H. U. von, H., *Présence et Pensée*, 1988, p.37.

18) Karfiková, L., Douglass, S. & Zachhuber, J.,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I*, 2007, p.74.

19) 이 주제를 다룬 다음 연구를 보라. Mühlberg, E., *Die Unendlichkeit Gottes bei Gregor von Nyssa*, 1966.

구도에서는 플라톤에게서처럼 물질은 정신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신의 선한 피조물로 이해된다.²⁰⁾ 따라서 물질성 그 자체가 긍정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을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피조물을 구성하는 물질, 시간, 신체, 언어 등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와 신적 구속 경영(economy) 속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레고리우스는 『에우노미우스 논박』을 시작하면서 에우노미우스의 사상에 대한 지적인 논박을 하기 전에 에우노미우스의 개인적 성격, 평판 등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에우노미우스의 핵심적인 사상을 그의 저술을 직접 인용하면서 제시한다. 이 인용문 안에는 에우노미우스가 주장하는 위계적 존재론, 신의 본질과 활동의 관계, 신의 이름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고, 이 주제들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와의 지면 논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의 교리와 관련한 모든 진술은 가장 높고 가장 진정한 존재를 향하고 있다. 모든 존재의 원인이고 출발점인 그 존재는 다른 모든 존재들 위에 군림하고, 다른 존재와 동등하지 않다. 다른 존재들은 인과관계의 순서상 그리고 다른 존재들은 그 최고의 존재의 활동(activity)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존재에 종속되어 있다. 존재들에 수반된 활동들과 그것에 적합한 이름들은 전체 교리를 포괄적으로 진술하기 위해서 다루어진다.²¹⁾

언급한 대로 에우노미우스의 위의 진술에는 그의 신학적, 철학적 입장이 농축되어 있다.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에우노미우스는 하위 존재가 상위 존재에 종속되어 있는 위계적인 존재론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최고 존재의 활동(activity)과 이름(name)의 문제가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에우노미우스가 최고 존재에서 시작하는 위계적 모델을 제시한 이유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사이의 위계적 질서를 설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에우노미우스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성부-성자의 본질에서 동등성을 천명한 니케아 정통을 따르기보다는 플로티누스(Plotinus)의 하나(the One)-정신(Mind)-혼(Soul)의 위계적 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취하고 있다고 볼

20) 이런 점에서 그레고리우스는 플라톤보다는 플로티누스의 생각에 더 가깝다. 그는 물질적인 세계의 가치를 폄하하는 영지주의 사상에 반대했다.

21) Brugarolas, M.,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 2018, p. 101.

수 있다.²²⁾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재해석하면서 플라톤 철학을 정교화 하였는데, 그는 플라톤의 이데아보다 더 상위의 최고 존재를 상정하고 ‘하나’라고 불렀다. 그는 하나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발출(emanation)의 이미지를 동원한다. 최고의 존재 하나에서 누스(nous), 즉 정신적 실체가 나오고, 여기에서 세계혼(World-soul)이 흘러나온다. 마지막으로 가장 나중에 흘러나온 물질은 하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반대로, 하위 존재들을 상위 존재에 대하여 에로스(eros), 즉 정신적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에우노미우스도 최고의 존재를 설정하고, 그 존재로부터 지성적인 것이 비롯되었고 지성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플라톤 전통에서 있고, 인간을 포함한 물질적 세계는 일자를 갈망하고 그 존재와의 연합을 추구한다.

이러한 플라톤적 위계 모델에서는 상위 존재와 하위 존재 사이의 관계가 본질과 활동의 관계로 설명된다. 이 모델을 기독교 교리에 적용하여 에우노미우스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를 본질(ousia)과 활동(energeia) 사이의 관계로 설정한다.²³⁾ 그런데 최고의 존재로서 성부는 부분들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단일성(simplicity)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나뉘어질 수 없다. 에우노미우스의 위계적인 삼위일체 모델에서 성자는 성부의 활동의 결과이다. 따라서 성자는 성부와 같은 본질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본질을 갖고 있으며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 성부의 활동으로서 성자는 성부의 의지를 구현하면서 그리스 사상의 로고스처럼 피조물과 창조자 사이의 중간자(intermediary) 역할을 하고 있다.

최고의 존재인 성부의 단일성의 문제는 에우노미우스에게 신의 이름의 문제와 불가분 엮여 있다. 성부가 단일성을 가졌다면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도 하나여야 한다. 에우노미우스는 그 어휘를 ‘나지 않음’(Unbegottenness)으로 설정한다. 그에게 성부는 ‘나지 않는 존재’(the Unbegotten)가 되고 아들인 성자는 ‘나아진 존재’(the Begotten)이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교리적 확신에 따라 나아진 분인 그리스도의 신적 지위를 격하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이런 사상에 대해 그레고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22) 그레고리오스(Gregorios)에 따르면 세 위격(hypostases)의 삼위일체는 플로티누스가 읽고 또한 에우노미우스에게 접근 가능한 문헌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었다. 참조, Gregorios, P. M., "Theurgic Neo-Platonism and the Eunomius-Gregory Debate", 2018, p.250.

23) 이 문제를 연구한 다음 책을 보라. Barnes, M. R., *The Power of God: Dynamis in Gregory of Nyssa's Trinitarian Theology*, 2016.

모든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ineffable) 본성이 어떤 어휘의 의미로도 표현될 수 없고 우리의 지식은 지식을 넘어서는 대상에 이르기까지 확장될 수 없고, 우리의 언어 능력은 완전히 숭고하고 신적인 것이 마음에 떠오를 때 생각에 떠오르는 것을 기술할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이 궤변가들은 논리학에서 다른 사람들의 무지를 비난하고 그들 자신은 그것들을 알고 있고 그들이 기쁘게 할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신적인 본성은 ‘나지 않음’ (unbegottenness) 자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지고의 존재’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신성의 위대함을 이 단어로 제한한다. 그래서 그들은 만일 ‘나지 않음’이 존재론적으로 최고라면 신적인 칭호들인 신성, 불멸, 권능 등은 이 칭호에 의존하여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²⁴⁾

위 인용문을 통해 우리는 그레고리우스의 저술이 왜 철학적 내용으로 가득찬지를 알 수 있다. 그레고리우스는 무한한 신의 본질은 인간이 알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에우노미우스는 그레고리우스보다 플라톤주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단일한 최고의 존재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른 언어관을 수용한다. 플라톤주의에서는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결합하면서 오염되었듯이, 인간의 언어도 육체와 결합함으로써 타락했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주의에서는 사물의 본성을 담아내는 언어가 있었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플라톤주의를 액면 그대로 수용한 에우노미우스에게는 신의 본질을 담아내는 어휘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둘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 때문에 둘 사이의 지적 대결의 장은 언어 철학적 담론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에우노미우스는 단일한 최고의 신성인 성부와 그에 순차적으로 종속된 성자와 성령을 배치하는 삼위일체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성부의 본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 성부의 본질이 아니라 의지를 표현하는 활동으로서 성자와 성령이 제시된다. 이 모델에서는 성부의 본질과 그 활동 사이에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레고리우스는 본질과 활동 사이에 연속성을 주장한다. 가령, 불과 열, 일꾼과 일과 같이 본질과 그것의 활동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듯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도 서로 그 본질상 분리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24) Karfíková, L., Douglass, S. & Zachhuber, J.,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I*, 2007, p. 72.

어떤 것을 놓고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의 활동은 일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일과 일하는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활동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 말 속에서 그 활동과 관계된 것은 무엇이든 포함하여 이해한다. 그리고 활동하는 사람을 언급할 때도 분명 그 활동을 가리키고 있다.²⁵⁾

말할 필요 없이 그레고리우스가 본질과 활동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부와 그의 활동으로서 성자 사이의 연속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레고리우스가 신적 활동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삼위일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외부로 나가는 신적 활동 둘 모두를 말한다. 바로 내재적(immanent) 삼위일체와 경륜적(economic) 삼위일체를 본질과 활동이라는 개념 틀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토르스타인 톨프센(Torstein Theodor Tollefsen)에 따르면, “그레고리우스의 신의 활동에 관한 교리는 두 측면을 가진다. 하나는 내부로의(*ad intra*)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로의(*ad extra*) 활동이다.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시고 성육신(Incarnation)을 통하여 자신의 인성 가운데서 일하시고, 구원여로의 도정에서 인격으로서 활동하신다.”²⁶⁾ 에우노미우스와 달리 그레고리우스는 신의 활동으로서의 성자가 나아진(*generated*)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본질상 다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본질과 활동 사이의 연속성을 주장함으로써 견지하고 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사이의 존재론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에우노미우스는 신으로부터 피조물에 이르는 위계적 모델을 설정하고, 위계에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우열이 정해진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각 위계들 사이에는 유비적인(analogical) 연관 관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하위 단계는 상위 단계에 대한 흔적들을 가지고 있고, 그 흔적을 통하여 상위 존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성부는 성자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 이 유사성 때문에 성부와 성자가 본질은 같지 않더라도, 둘 사이에 의지(*voluntas*)의 연합이 생겨날 수 있다.

반면, 그레고리우스의 모델에서는 본질과 활동 사이에 연속성이 있지만, 인간이 신의 본질을 알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신의 본질은 인간의 지성과 언어로 파악도, 표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25) Brugarolas, M.,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 2018, p.111.

26) Tollefsen, T. T., "Essence and Activity (Energeia) in Eunomius and St. Gregory of Nyssa", 2007, p. 441.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의 본질과 활동 사이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활동은 유한한 피조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활동에 대한 지식은 동일할 수 없고, 상대적, 파편적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

4. 그레고리우스와 에우노미우스의 언어관 비교

『에우노미우스 논박』에서 에우노미우스와 그레고리우스의 중대한 차이 중 하나는 신에 대한 인간의 진술에 대한 이해의 차이이다. 에우노미우스는 신의 단일한 본질을 표현하는 순수한 언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에우노미우스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지적인 배경에는 플라톤적 존재론이 자리 잡고 있다. 플라톤은 『크라틸로스』편에서 언어는 사물의 자연적 본성은 반영하는가, 아니면 그것은 인간들 사이의 규약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플라톤의 주인공 소크라테스는 두 극단적 입장 사이에서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플라톤은 인간이 육체로 오염되기 전에 사물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언어를 상정하였다는 것으로 볼 때 이상적인 언어는 사물의 본질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에우노미우스는 전형적인 플라톤적 언어관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레고리우스는 에우노미우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그의 생각의 출처를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추측한다. “피조물에는 그것을 만든 분의 위엄이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들에도 신적 지혜자 드러나 있다..” [에우노미우스]는 플라톤의 대화편 『크라틸로스』를 직접 읽었거나 그것을 읽은 이에게서 이 내용을 배웠을 것이다.”²⁷⁾

에우노미우스에게 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언어는 존재해야 하고, 때문에 그 언어는 다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은 본성상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단일성’ (simplicity)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신은 ‘나지 않은 존재’ (Unbegotten)로 불린다. 하지만 신성(Divinity)은 본성

27) Karfíková, L., Douglass, S. & Zachhuber, J.,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I*, 2007, p.150.

상 단순하다(simple). 그리고 단순한 존재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만일 신이 본성상 복합적이라면(uncompounded), 그리고 ‘나지 않는 존재’라는 이름이 그에게 적용된다면 ‘나지 않는 존재’가 그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의 본성(nature)은 나지 않음(unbegottenness)과 다르지 않다.²⁸⁾

따라서 에우노미우스에게 성서에서 발견되는 여러 하느님에 대한 표현은 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지성이 감각적 경험에 기초해서 만들어낸 개념(epinoia)에 불과하다. 에우노미우스의 논리에서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개념을 인간이 숭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일 신의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에는 특별한 지위가 부여된다. 그리고 신의 본질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언어를 통해서만 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나지 않는 존재’를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낸 것에 상응하는 이름만으로 하느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실재(reality)에 부합하여 신을 경배하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개념에 기반한 표현들은 그 존재를 이름과 발화(utterance)에만 갖는다. 따라서 본성상 그것들은 음성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하느님은 음성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하느님은.. 나지 않는 존재로 계셨고 현재도 그렇다.²⁹⁾

에우노미우스가 신의 본성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인 것은 언어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라기보다 그의 급진적 아리우스 사상 때문이다. 그는 성부의 본질을 ‘나지 않음’으로 성자의 본질을 ‘나아짐’으로 규정했는데, 이러한 생경한 명칭을 부여한 것은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는 기본 전제를 확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읽을 수 있다. “출생은 결코 하느님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었다!”³⁰⁾ 에우노미우스가 성부를 ‘나지 않는 존재’로 규정했을 때, 성서에는 생경한 어휘를 사용한 것은 의도성이 있다. 성서의 용법에서 신이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표현은 신자들에게 익숙한 표현이다. 따라서 신의 본질을 나지 않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그의 언어 철학에 따라서 단일한 신을 표현하는 어휘는 하나라는 원리에

28) Karfíková, L., Douglass, S. & Zachhuber, J.,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I*, 2007, p. 64.

29) Eunomius, ed. Vaggione, R. P., *The Extant Works*, 1987, p. 42-3.

30) Eunomius, ed. Vaggione, R. P., *The Extant Works*, 1987, p. 43.

입각한다면, 나아진 존재는 신의 본질이 될 수 없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아리우스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이며, ‘나지 않음’이라는 용어는 시작과 원인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의 철학적 신관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언어적, 교리적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에우노미우스는 성서 텍스트를 근거로 삼는데, 여기서 언어의 기원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에우노미우스 논박』에서 다루어지는 언어의 기원의 문제는 바로 언어가 사물의 본질과 일치한다는 그의 기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슈였다. 에우노미우스는 언어가 신적 기원을 가진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신이 준 언어는 신이 본질을 담아서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에우노미우스는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성서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약성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근거로 언어의 기원 문제를 다룬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어를 인간에게 부여할 때 사물에 가장 적합한 언어를 부여했었다. 창조 기사에 대한 에우노미우스의 해석으로 볼 때, 그에게 사물을 묘사하는 가장 적합한 언어는 하나이다.

이런 생각을 교리적 진술에 적용할 수 있다. 만일 성부의 본질과 성자의 본질이 다르다면, 성부와 성자의 본질을 표현하는 언어가 달라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여기서 에우노미우스는 전통적인 삼위에 대한 명칭인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이름들은 신적 본질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용어들은 인간이 만들어 낸 신에 대한 인간적 개념에 불과하다.

위에서 에우노미우스와 그레고리우스 사이의 두 존재론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존재론의 차이는 언어의 이해에 대한 차이를 낳는다. 언어의 문제가 논쟁의 중심적 영역이 된 것은 성자와 성부를 표현하는 어휘들이 가리키는 대상의 본질을 표현한다면, 니케아 신조에서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졌다고 천명된 성자의 신적 지위를 격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언어의 기원에 대한 두 논쟁자의 입장도 두 존재론의 차이와 연속성 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언어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지만 이 선물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다르다. 에우노미우스의 경우 언어는 신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느님이 사물의 본질과 일치하는 언어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에우노미우스는 구약성서 「창세기」의 창조 내러티브를

자신의 입장에 대한 논거로 이용한다. 그는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셨지 하늘과 땅이라는 말을 만드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하느님은 빛과 어둠을 구분한 후 빛을 낮으로, 어둠을 밤으로 칭하셨다고 주장한다.³¹⁾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물의 본질에 적합한 언어를 신이 명명해 주신 것이라는 뜻이다. 그레고리우스는 에우노미우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모세는 에우노미우스에게 증거가 된다. 그에 따르면, 명명된 사물들과 그것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사물들의 본질을 정하신 분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바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사물들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사물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전의 일이다.³²⁾

이에 반해 그레고리우스는 언어는 신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 주신 선물인 지성을 통하여 발명해 낸 것이라는 주장을 견지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어 자체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성서의 근거로서 아담이 사물들의 명칭을 부여했다는 이야기를 제시한다.

그러한 교리는 위대한 모세에 의해서 확증된다. 그는 아담이 동물들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흠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창세기」 2장19절, 새번역]³³⁾

그렇다면 그레고리우스에게 언어는 인간의 발명품이다. 따라서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언어들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관계를 통해 의미가 생겨날 수 있다. “당신은 낮과 밤에 대해서 같은 정의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빛은 어둠의 반대라고 생각된다.”³⁴⁾ 여기서 우리는 언어의

31) Karfíková, L., Douglass, S. & Zachhuber, J.,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I*, 2007, p. 119.

32) Karfíková, L., Douglass, S. & Zachhuber, J.,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I*, 2007, p. 117.

33) Karfíková, L., Douglass, S. & Zachhuber, J.,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I*, 2007, p. 150.

의미는 그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상호 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현대 언어학의 통찰을 선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대적인 용어로 본다면 에우노미우스는 표상주의적(representational) 언어관을 제시하고 있다.³⁵⁾ 반면 그레고리우스의 언어관에서 언어의 의미는 차이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 간격의 영향을 받는다는 데리다(Derrida) ‘차연’ (差延, *différance*) 개념도 미리 엿볼 수 있다.

5. 신을 향한 갈망과 표현 불가능성

그레고리우스의 신학적 인간학에서 인간은 이성적 동물(*animal rationale*) 이전에 신을 갈망하는 존재이다. 신에 대한 갈망의 원인은 인간이 신의 형상(*imago Dei*)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은 그리스 사상에서 ‘같은 것은 같은 것에 의해 알려진다’는 상식에 기초한다. 신을 닮은 인간은 자신의 원형인 신을 갈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레고리우스의 인간론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실은 더 분명해진다. 그레고리우스는 『전도서 강해』에서 ‘헛되고 헛되니’라는 구절을 주석하면서 인간의 이중적 본성을 지적한다.

인간의 구성은 이중적이다. 영혼은 육체와 연합되어 있다. 우리 자신 안에서 관찰하는 바대로 생명이 취하는 형태는 두 부분에 각각 알맞게 나누어졌다. 하나는 영혼의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은 사멸하고,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그 둘은 뒤섞여 있지 않다. 육체는 현재만을 바라보고, 영혼의 목표는 지속되는 시간 속에 뻗쳐있다. 둘 사이의 차이는 크다. 하나는 사멸하고, 다른 하나는 불멸한다. 하나는 일시적이지만 다른 하나는 영원하다. 전도자의 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한 삶과 대비되는 감각적 삶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³⁶⁾

그레고리우스에 따르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적

34) Karfiková, L., Douglass, S. & Zachhuber, J.,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I*, 2007, p. 122.

35) Mosshammer, A. A., "Disclosing but not Disclosed Gregory of Nyssa as Deconstructionist", 1990, p. 100.

36) Nysse, G., *Homélie sur l'Ecclesiaste*, 1996, p. 119-121.

인 대상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지성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진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관은 플라톤 철학 전통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망을 플라톤은 에로스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플라톤에게 에로스는 아름다움의 원형(archetype)에 대한 정신적 사랑이다. 플라톤의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에서 정신적인 사랑으로 영혼의 상승을 추동하는 기능이다. 『에우노미우스 논박』은 에우노미우스를 상대로 한 논쟁적 저술이기 때문에 주로 언어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향한 에로스라는 플라톤적 주제는 여기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필자는 이 주제가 이 논쟁적 저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사건을 신적 아름다움의 추구에 대한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부분에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물질적인 것을 통해 이해에 도달하지 않았고, 그의 생각은 이해 가능한 어떤 것으로 늘 방해받지도 않았고 지식을 넘어서는 것들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도 않았다. 이성의 사용을 통하여 그가 속한 민족의 지혜-갈데아의 철학을 의미-를 넘어서서, 다시 말해 오직 가시적인 사물들에만 도달하는 지혜가 아니라, 감각에 나타난 것들을 넘어서서, 눈으로 관찰되는 사물들의 아름다움 그리고 천체의 놀라운 조화로부터 그는 아름다움의 원형적 모델을 보기를 갈망하였다.³⁷⁾

그레고리우스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소재로 삼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이 부분은 에우노미우스의 합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기술되었다. 그는 인간의 지성으로 신적 본질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그레고리우스의 아브라함은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서 신적인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갈망을 지닌 존재로 그려진다. 여기서 갈망은 인간의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레고리우스는 인간의 신을 향한 갈망을 인간 본성의 중심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레고리우스의 에로스의 신학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레고리우스의 저술들 가운데서 에로스를 중심 주제로 한 저술은 『아가강화』(雅歌講話)로 이 주석은 신랑 솔로몬과 신부의 육적인 에로스를 알레고리적으로

37)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I, 2007, 79.

해석하여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영적인 사랑으로 승화시켜 이해한다. 이 주석에서는 그리스도교적 신적 사랑인 아가페와 플라톤적 에로스 개념 사이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에로스는 신랑 솔로몬과 신부 사이에 상호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을 향한 인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 모두 에로스로 표현된다. 그런데 이 주석서에서 에로스가 강화되면 필수록 신은 표현 불가능한 존재로 그려진다.

신적인 그리고 무한한 아름다움을 바라본 사람은 이미 파악한 것보다 더욱 새롭고 더욱 놀라운 것을 항상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신부는 항상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보고자 하는 신부의 갈망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가 보는 것은 더욱 화려하고 더욱 신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³⁸⁾

신을 향한 갈망이라는 주제는 『에우노미우스 논박』에서 두드러지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레고리우스가 에우노미우스를 논박하는 중요 논리로 사용하는 신의 본질의 표현 불가능함이라는 주장은 신을 향한 인간의 본성적 갈망이라는 주제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에우노미우스는 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나지 않으신 분’을 제시한 반면, 그레고리우스는 성서가 다양한 신을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레고리우스는 인간이 신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은 신의 이름을 표현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 욕구가 여러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그레고리우스에 따르면, “정신이 감각이 도달할 수 없는 드높고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할 때, 다시 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ineffable)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신은 성급하게 그 대상을 파악했다고 볼 수 없고,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개념에 대한 해석을 더 성급하게 하게 된다.”³⁹⁾ 인간이 신적 본질을 언어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적 대상 앞에서 인간은 그 신적 대상을 언어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인간 정신은 움직인다. 다윗이 신의 다양한 이름을 궁리해낸

38) Gregory of Nyssa, *Homilies on the Song of Songs*, 2012, p. 339.

39) Karfíková, L., Douglass, S. & Zachhuber, J.,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I*, 2007, p. 189.

것,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인 것은 바로 신적 대상이 감각적 존재인 인간에게 멀리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감각기관은 이 신적 대상의 활동에 반응하여 움직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하느님에 대한 욕구는 바로 언어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다. 신의 본성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욕구는 결코 해소될 수 없지만, 인간은 끝없이 그 존재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에우노미우스는 이러한 욕구적 차원을 폄하하면서 신에 대한 지적인 이해만을 추구한 반면, 그레고리우스는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인간의 차원을 경시하지 않고, 감각을 넘어서는 대상과 감각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을 주장하고 있다.

6. 그레고리우스에게서 언어와 신의 이름의 의의

그레고리우스는 언어가 인간 지성의 발명품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무한한 창조자와 유한한 피조물 사이의 존재론적 격차에서 찾는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있는 무한한 하나님과 달리 유한한 피조물의 특징은 공간과 시간적 간격을 차이를 특징으로 한다. 그레고리우스는 언어가 유한한 피조물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언어를 발생시키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언어는 유한한 피조물에 속한 것이고, 반면 시공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은 언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야 하고,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타인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없고 언어라는 상징을 통해서만 소통이 가능하다. 반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현전(present)하고 그는 기억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의 시각의 힘은 만물을 아우르고 관찰하기 때문이다.”⁴⁰⁾

따라서 그레고리우스에게 언어는 신이 세계의 본질을 알려주는 계시의 매체가 아니라 인간이 신의 활동을 경험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언어가 시공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능력이고, 역시 언어가 포착하는 세계도 유한한 시공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언어는 신의 활동의 특정 측면만을 해석하여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언어는 인간에게 준 신의 선물이

40) Karfíková, L., Douglass, S. & Zachhuber, J.,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I*, 2007, p.122.

고 이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소통을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레고리우스에게 언어는 유한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의 활동에 대한 대표적 인간의 표현이 ‘하느님의 손’과 같은 표현이다.

만일 우리가 하늘을 하느님의 손가락, 올려진 팔, 치켜든 눈과 눈썹, 발과 신 밭이라고 들었을 때 우리는 각 표현들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상승하여 하느님에게 적합한 개념(idea)들로 올라가고 육체적인 표상(notions)들로 그 개념을 훼손시킴으로써 순수한 본성(pure Nature)에 대한 설명을 망치지 않는다면, 어휘들을 발화하는 것도 역시 신적 의지(divine will)를 고려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⁴¹⁾

그레고리우스에게 언어는 신의 본질이 아닌 신의 활동에 대한 인간의 표현이지만 에우노미우스보다 인간의 언어에 부여하는 가치가 매우 크다. 에우노미우스는 신의 이름 중에서 가치 있게 여긴 것은 ‘나지 않은 존재’ 하나뿐이었지만, 본질의 간접적 표현으로서 신의 활동을 표현한 인간의 언어들은 의미가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레고리우스에게 신의 표현 불가능성과 신의 이름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신의 본질을 알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신의 이름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신의 이름을 다양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육체라는 유한성의 조건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은 육체를 넘어설 수 있지만, 육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호’(sign)를 통해서만 세계를 인식한다. 여기에는 신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그것 자체로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호들(signs)을 통해서 그 대상에 다양한 이름들을 붙여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성의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⁴²⁾

그렇다면 인간은 알 수 없는 신의 이름을 왜 부르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

41) Karfíková, L., Douglass, S. & Zachhuber, J.,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I*, 2007, p.110.

42) Karfíková, L., Douglass, S. & Zachhuber, J.,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I*, 2007, p.147.

자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그의 이름이 필요하다. 그레고리우스에 따르면 에우노미우스도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른 명칭인, 문, 빵, 길, 포도, 양키기, 빛과 같은 명칭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신 자’가 그리스도의 본질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여기고 나머지 말을 인간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적 개념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반면, 그레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명칭들이 인간이 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은 인간의 삶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주신다. 각각의 다양한 유익들은 이런저런 칭호에 의해서 확인된다. 관찰되는 통찰이나 행동들은 특별한 이름이 되는데, 이 칭호는 개념적으로 적용된다.”⁴³⁾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가령 목동과 같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알려준다. 에우노미우스에게 열등한 개념들이 사실은 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7. 결론

본 논문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동방 그리스도교 권에 속해 있는 두 지성인 사이에 벌어진 교리 논쟁을 소재로 논쟁에서 보여준 언어 철학적 통찰들을 정리해 보았다. 두 지식인 모두 플라톤주의로 무장한 지적으로 뛰어난 학자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플라톤주의 노선에 따라서 교리를 이해하고, 그 교리를 자신의 철학 사상에 비추어 재해석하였다. 반면 그레고리우스는 기독교 정통의 입장에서 신의 무한성과 피조물의 유한성이라는 구도 아래에서 신의 본질과 신의 이름의 문제에 접근하였다. 그레고리우스의 생각은 플라톤적 존재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지만, 성서적 동기와 융합되면서 서구 지성사에서 흥미로운 논점들을 제시하였고, 소위 신의 표현 불가능성과 신의 이름의 가능성이라는 모순되어 보이는 주장을 담은 서구 기독교 신비주의의 분수령이 되었다.

43) Karfíková, L., Douglass, S. & Zachhuber, J.,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I*, 2007, p.26.

참고문헌

- Balthasar, H. U. von, *Présence et Pensée*, Paris, Beauchesne, 1988.
- Brugarolas, M.,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 Brill, Leiden, 2018.
- Crouzel, H., "Grégoire de Nysse est-il fondateur de la théologie mystique?"
in *Revue des grecques*, Vol. 80, *Revue des Études Grecques*,
1967.
- Daniélou, J., *Platonisme et théologie mystique*, Paris, Aubier, 1944.
- Eunomius, ed. Vaggione, R. P., *The Extant Works*, Oxford, Clarendon Press,
1987.
- James, W.,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
London/New York, 2002.
- Jr. Norris, R., *Gregory of Nyssa: Homilies on the Song of Songs*, SBL,
Atlanta, 2012.
- Karfiková, L., Douglass, S. & Zachhuber, J.,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I*, Brill, Leiden, 2007.
- Knepper, T. D. & Kalmanson, L. E., *Ineffability: An Exercise in Comparative
Philosophy of Religion*, Springer: New York, 2017.
- Louth, A., *The Origins of the Christian Mystical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1981].
- Mosshammer, A. A., "Disclosing but not Disclosed Gregory of Nyssa as
Deconstructionist", in *Studien zu Gregor von Nyssa und
der christliche Spätantik* Vol.12, Leiden, Brill, 1990.
- Nysse, G., *Homélie sur l'Ecclesiaste*, Cerf, Paris, 1996.
- Plato, ed. Johansen, T. K. & trans. by Lee, D., *Timaeus and Critia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Tollefsen, T. T., "Essence and Activity (Energeia) in Eunomius and St.
Gregory of Nyssa", in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I* Vol. 82, Supporting Studies, 2007.

Abstract

Gregory of Nyssa's Christian View of Language -The Problem of Divine Ineffability and Divine Name-

Lim, Hyeongkwon*

The Christian thought of Gregory of Nyssa constitutes a watershed in the history of Christian mystical tradition. His *Contra Eunomium* is a good introduction for understanding his overall thought. Since his Christian mystical thought is shaped by his dialogue and confrontation with Eunomius' Arian thought. Both thinkers were baptized by ancient Platonic idea. However, one is thoroughly influenced by Platonic ontology, the other by biblical worldview based on the radical difference between infinite Creator and finite creatures. Eunomius called the Father *Unbegotten*, the Son *Begotten* and at the same time held that these words express divine essence. On the contrary, Gregory of Nyssa opposes this idea, since the human word cannot grasp divine essence. This paper hold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thinkers originated from their different Platonic ontologies.

【Key words】 *Christian Mysticism, Ineffability, Divine essence, Divine activity, Platonic ontology*

*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nior Research Fellow

** 논문접수일: 2022. 12. 20. 논문심사기간: 2022. 12. 23. ~2023. 01. 13. 게재확정일: 2023. 01. 31.